

함평군, 고품질 애호박재배 기술교육 실시

고품질 애호박 생산 재배 관리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7ha 규모 19농가 연간 380여톤 생산 출하...매년 증가

함평군은 23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애호박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품질 애호박 재배 기술 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함평군의 지역 전략작목 중 하나인 애호박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품질 애호박 생산 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애호박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과 병해충 예방요령이 있으며 재배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

현재 함평군 애호박은 7ha 규모로 19농가가

연간 380여톤을 생산 출하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시설 애호박 재배 비닐하우스의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속적으로 애호박 농가에 신기술 보급과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함평군 애호박이 전국 최고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기자



영암도기박물관, 24~31일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영암도기박물관은 초보자과정 생활도예교실과 심화과정 도예동아리 강좌로 구성된 성인도예교실을 열고 있다.

이중 생활도예교실은 △지역사회 문화교류·연대 △지역민 유대감 형성 △상상력, 창의성 유발 및 두뇌활동 △예술하는 자아 발견 등이 취지다.

특히, 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어 구워내는 과정이 손가락 소근육의 물리적 운동, 마음을 수련하는 심리적 운동을 겸비하고 있어 요가와 유사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영암도기박물관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도기 빚기 기초와 장식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동시에 1,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 영암 ‘구림도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수업도 진행된다.

가마소성비용을 제외하고 영암군민 성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교실은, 9-11월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열린다.

이번 교실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일부는 12월 작품전시회에 출품된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살리고, 구림도기의 전통을 잇는 강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문화·예술·건강 생활을 두루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아동안전행복플러스 사업 업무 협약...안전망 구축

목포시가 지난 22일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목포시·굿네이버스·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망을 마련하고 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목포시 여성가족과 이정은 과장, 굿네이버스 배준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임광묵관장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각 기관은 아동학대 조기예방 사업인 ‘아동안전행복플러스’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 예방 프로그램 마련 ▲아동의 안전한 가정 환경 조성 ▲고위험군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인식 제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아동 안전망 구축 등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으로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학대없는 목포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2023 소금박람회 성료

서울 코엑스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하늘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 주제

신안군은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3 소금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3년 소금박람회 행사는 6개 테마관 81개 부스로 운영하여 천일염 사우나·힐링 동굴·가습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참여 유도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미용·건강 등 다양한 천일염 활용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산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신안천일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소비자관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 강화 및 천일염의 가치를 올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우수 소금 갯벌 천일염’의 주제로 천일염 품질검사, 방사능검사 등을 통한 천일염의 안전관리 현황 및 세계의 소금 트렌드 분석을 통한 천일염의 수출 방안을 제시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소금박람회를 통해 신안천일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와 함께 천일염의 다양한 활용화를 통한 산업화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2023년 분재전문가 양성 교육' 성료

4월부터 8월까지 15회 교육 운영, 17명 수료



무안군은 지난 9일 일로읍농업인상담소에서 '2023년 분재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식을 마쳤다.

이날 수료식은 지난 4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9일 15회차 교육까지 70% 이상 참여한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수료증 수여, 교육생 대표 소감 발표,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개설된 분재전문가 양성 교육은 무안군 관내 분재 소재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분재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재배기술은 물론이고 분재연장 종류 및 사용방법, 분갈이 정면설정, 분재수형, 가지치기 시기 및 요령, 철사 걸이 요령, 분갈이 시기, 분재 휴갈이 요령, 분재관리사 시험대비 이론과 실습 등 분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짧은 기간에 안료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분재 관리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반려 분재 취미생활로 승화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운영위원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8월 21일 영광군 소회의실에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운영위원회는 엑스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김정섭 부군수를 운영위원장으로서, 영광군의회 의원 및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영광교육지원청, 관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수기업과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군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